

日帝下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고광명**
kkm0630@jejunu.ac.kr

< 目次 >

- | | |
|----------------|---------|
| 1. 머리말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맺음말 |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

主題語: 일제하(under Japanese Imperialism), 조선인(Chosun), 기업가(Entrepreneurs), 사회적 배경(Social Background), 다각화(Diversification)

1. 머리말

1876년 이후 조선(朝鮮)에는 근대적 회사 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기 시작하였지만 서구의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보였던 합리적인 근대 기업가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개항(開港)에서 한말(韓末)에 이르기까지 개성(開城)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 가운데 탁월한 기업가적 능력과 경영자적 소질을 가진 상인들이 소수 있었으나 그들이 존재하는 지역도 한정되었고 시대의 제약도 받았기 때문이다.¹⁾ 한말의 기업가(企業家)는 일본 자본의 침투, 금융 공황, 자본 부족, 경영기술 부족 등으로 도산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 기업가는 계속 존속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결국, 전통적인 상인에서 근대 기업가로 변신한 이른바 상인서민출신의 기업가는 영리에 예민하고 환경 적응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은 개항 이후의 새로운 상업 관계에서 점차 근대기업의 경험을 쌓으면서 1900년대부터 근대 기업가로 등장하였다.²⁾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9-327-B00339). 또한 본 논문은 2011년 韓國日本近代學會 第23回 國際學術大會(『日本學 研究』에 대한 自他的 視點)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1) 李漢九(1989)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靑史, p.49; 이한구(1999) 『한국 재벌형성사』 比峰出版社 참조
2) 黃明水(1976) 『企業家史研究』 檀大出版部, p.107

이후 조선에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1910년 한일병합(韓日併合) 및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의 제정 등에 의해 민족기업(民族企業) 설립이 크게 억제되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약간의 민족기업이 점차적으로 설립되었다. 1920년 조선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조선인의 회사설립은 완화되어 민족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갔다. 1920년을 전후하여 지주출신의 기업가들은 근대기업의 설립에 대거 진출하였다. 그들은 한말의 귀족관료출신의 기업가인 경우와는 달라서 기업경영에 실패하지는 않았으며, 근대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쌓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주출신의 기업가 이외에 서민출신의 기업가도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상업·농업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대개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점원이나 사환(使喚)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경영을 쌓은 후 사업계에 진출하여 기업가가 되었다.³⁾ 1930년대는 일본 재벌계회사(일본 독점자본)가 대거 조선에 진출하면서 중공업 발달이 본격화되었다. 일제하의 민족기업은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조선인 재벌기업도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일부 조선인 기업가는 민족주의의 정신에 입각하면서도 기업의 수지타산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갖는 생리가 영리추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⁴⁾

하지만 이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주권이 상실되어 이중 삼중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에 급급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당시 조선경제는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주체적 역량이 없이 식민지 모국, 즉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공산품 소비지역,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기업가들은 식민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윤 창출과 부(富)의 확산 계기로 변화시켜 가는 측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상점을 비롯한 조선인 공장·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아울러 조선인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 시장거래의 증가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성장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조선인 기업가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으며, 조선인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 민족자본을 형성하면서 근대 기업가 계층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조선인 기업가들이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동기로부터 경제계에 투신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경과에 따른 사회계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⁵⁾

3) 趙璣濬(1973) 『韓國企業家史』博英社, p.245

4) 黃明水(1976) 앞의 책, p.132

5) 鳥羽欽一郎(1988) 『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研究』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p.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個人履歷書》 등에서 조사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최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체화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기업가적 특성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근대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킨 각 산업에서 조선인 기업가들의 등장을 파악하고, 이들의 등장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인 기업가를 유형화하여 기업가 탄생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규명보다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최근 국내에서 조선인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Cooper et al.(1987)은 기업가 중에서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가인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보여주는 기업가적 기질이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환경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기업가적 활동의 방향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⁶⁾ Lerner, Hisrich & Brush(1986)는 이스라엘 여성 기업가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창업기업가 부모), 인적자본(학력, 이전직업, 이전창업경험, 이전직위, 사업기술 등), 동기목적(성취동기, 자율성 동기, 경제적 동기), 네트워크(조언자, 인적 네트워크 수), 인구 통계적 변인(연령, 자녀수, 결혼여부), 환경요인(재정원천, 산업특성) 등의 요인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동기와 사회학습, 인적 네트워크, 이전창업경험, 직무경험, 기술, 환경 등의 요인이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⁷⁾

6) Cooper, A. C. & W. C. Dunkelberg(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pp.11-23

7) Lerner, M., Brush, C. & Hisrich, R.(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pp.315-339

한편 Collins et al.(1964)에 따르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성상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여 교육수준과 반비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⁸⁾ 그와 비슷하게 Stuart et al.(1990) 연구에서 신생기업의 성과에는 창업경험이 중요하며 기업가의 교육수준이 오히려 성과와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Cooper et al.(1987)은 중소기업의 창업자 890명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 66%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교육정도는 기업가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石川健次郎(1974)는 『大人名事典』의 직종란에 실업가라고 기술된 422명(조사항목은 출신, 가족 내 지위, 출생지, 최초 이주지, 교육지역 등)을 대상으로 메이지(明治)시대 기업가활동에 대해 통계적 관찰을 시도하였다.¹⁰⁾ 青沼吉松(1965)는 최고경영층 420명(조사항목은 거주지와 출생지, 고등교육기관의 배치, 지역별 경영자 배출비율, 학력 등)을 추출하여 1965년 전후에 주목된 일본적 경영의 봉건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공업화와 관련하여 경제주체의 문제를 규명하였다.¹¹⁾ 滿成 博(1960)는 일본 산업계의 회장, 사장, 경제단체의 대표자 212명(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업종, 경력 등)을 조사하여 일본의 엘리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비즈니스 엘리트가 거대기업의 톱매니지먼트 지위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기초로 현대 비즈니스 엘리트가 연공서열제도, 교육제도, 기업 내 관료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추적하였다.¹²⁾ Hirshmeier(1964)는 일청(日淸)전쟁 이전에 혁신적인 활동을 행하고 적어도 현저한 성공을 거둔 50명(조사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실무훈련, 업적 등)을 추출하여 메이지시대 기업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재벌창업자 이외에도 혁신성과 지도력을 지닌 실업가의 고찰을 통하여 메이지시대 기업가의 일반성에 대해 검증을 행하였다.¹³⁾ 淺野俊光(1980)는 일본 공업화 시대에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낸 인물 212명(조사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훈련, 도시, 기업유형 등)을 추출하여 일본 공업화의 기반을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며, 각 계층에서 배출하는 ‘다원적 공업화(多元的工業化)’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정부의 기업가적

8) Collins, O. F. & G. Moore(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9) Stuart, R. W. &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215-230

10) 石川健次郎(1974) 「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 『大阪大學經濟學』23(4) 大阪大學 經濟研究所, pp.85-117

11) 青沼吉松(1965) 『日本經營層』日本經濟新聞社

12) 滿成 博(1960) 『ビジネス エリート』中央公論社刊

13) Hirshmeier(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ji Japan* [土屋喬雄由井常彦訳(1965) 『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東洋經濟新報社]; 由井常彦ヒルシュマイア(1975) 「江戸時代の價值體系とビジネス-明治期の工業化との關連において」 『經營史學』10(1) 日本經營史學會, pp.34-53

노력 혹은 재벌의 활동을 일본자본주의 발전의 지주(支柱)로서 중시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대재벌, 지도력 있는 대 실업가에 조사의 초점이 지나치게 편중됐음을 인식하였다.¹⁴⁾ 麻生 誠(1970)는 출생연대별로 각각 127명과 120명의 비즈니스 엘리트(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경력 패턴, 엘리트의 학력구성, 평균연령 등)를 대상으로 사회체제의 폐쇄성과 개방성, 고정성과 유동성을 염두에 둔 사회적 성격의 결정요인, 역할규정의 영향, 출신계급과 이익의 관계인 ‘체제엘리트(體制エリート)’의 사회적 출신계층을 고찰하였다.¹⁵⁾

이 외에도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泳謨 (1971)는 日帝時 대지주의 사회적 배경이 대단히 높고 권력, 즉 경제외적 방법에 의한 토지자본의 형성이 강력하였고, 그들의 사회변동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권력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¹⁶⁾ 趙璣齋(1969)은 한국의 근대 기업가에 관한 사적연구를 시도하면서 한국 기업가의 생활과정과 그 행동양식의 패턴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선말기와 일제하의 한국인 기업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¹⁷⁾ 高承濟(1974)는 조선말기와 일제시대를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구분하여 당시 25개 사업부문의 대표적인 기업과 기업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민족기업의 형성 및 발전과정 외에 창업형 경영자들에 대한 인물사적 고찰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¹⁸⁾ 黃明水(1976)는 한국에서 시대별로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한국 기업가의 기업동기, 행동양식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유교정신의 영향이 매우 크며, 유교사상과 한국경제의 발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⁹⁾ 한상복(1997)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豊基邑)에서 활동한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직물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은 초창기에 이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본고장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직물기업의 소유와 경영주체는 창업자들이 그들의 2세대보다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물기업가들의 사회계층과 생활양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행위도 자산 및 투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논술하고 있다.²⁰⁾ 김영수(1996)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1개의 표본기업을 분석하여 기업

14) 淺野俊光(1980) 「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經營史學』14(3) 日本經營史學會, pp.87-115

15) 麻生 誠(1970) 『大學と人材育成』中央公論社刊.

16) 金泳謨(1971) 「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 背景과 移動」『아세아연구』14(2)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pp.107-125

17) 趙璣齋(1969) 「3·1운동 後의 民族기업의 일 유형」『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동아일보편, pp.751-752

18) 高承濟(1975) 『韓國經營史研究』韓國能率協會

19) 黃明水(1976) 앞의 책, p.132

20) 한상복(1997) 「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농촌사회』7 한국농촌사회학회, pp.5-32

가의 배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기업가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등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²¹⁾ 이덕훈(2003)은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기업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을 해명하였다. 전전의 산업계를 대표하던 기성재벌의 붕괴 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업경영자의 세 가지 유형, 즉 전문경영자와 창업자형, 준 창업자형 기업가의 등장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등장과정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논하였다.²²⁾ 고광명(2006)은 《기업가의 개인이력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업가의 출신성분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²³⁾ 고광명(2008)은 『20世紀 濟州人名事典』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제주도 기업가는 일제하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경영성과인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²⁴⁾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가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경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인 기업가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사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근현대인물자료),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統督府官報(1910~1945)』,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²⁵⁾, 朝鮮新聞社編(1922, 1935) 『朝鮮人事興信錄』, 田中正剛編(1913) 『朝鮮紳士寶鑑』, 朝鮮研究會編(1917) 『新朝鮮成業銘鑑』, 張在

21) 김영수(1996)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이덕훈(2003) 「戰後 日本의 企業家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일본문화학보』 17 한국일본문화학회, pp.1-20

23) 고광명(2006)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동아연구』 5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191-216

24) 고광명(2008)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經營史學』 23(2) 한국경영사학회, pp.221-251

25)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洽(1927) 『朝鮮人會社』, 中村資郎編(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有馬純吉(1931) 『朝鮮紳士錄』, 天野 謙編(1929) 『朝鮮商工大鑑』, 阿部 薰編(1935) 『朝鮮功勞者名鑑』, 阿部 薰編(1938) 『朝鮮人物大系』, 東洋經濟新聞社編(194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大韓商工會議所(1950) 『大韓民國 銀行會社組合 團體名簿』, 朝興銀行(1977) 『朝興銀行 100年史』, 오미일(2002) 『한국근대 자본가연구』²⁶⁾, 각종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서 선정한 조선인 기업가들은 공칭자본금 1万 圓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한 대표적인 기업가들이다. 이들 기업가들은 일제시기(1910년~1945년)에 총 1,576 개사(1910년대 96개사, 1920년대 355개사, 1930년대 1,125개사)를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수행 하였다. 조사대상 기업가들의 범주는 1,576개사의 설립에 직접 관계한 발기인 내지 동 기업의 설립 후 초창기 기업경영에 취체역, 감사역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선인 기업가의 중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 출신성분이 확인된 기업가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상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한 것은 첫째, 1870년 이전부터 1900년 이후에 출생한 주요 조선인 기업가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출신의 사회계층이나 개인적 배경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인 기업가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인 기업가별 내용이 개인적 배경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활동시기, 교육(학력), 경영다각화, 업종 등 외부적, 내부적 요인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분석기준에서 기술한 6가지 항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에 수록된 모든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조선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119명(322명 중 6개 자료가 확인된 기업가)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출생 시기(연령), 출신지역, 활동시기, 교육(학력), 경영다각화, 업종 등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조선인 기업가들의

26) 오미일(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사회적 배경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종합화하고 분류하기 위해 선택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자(조기준, 1969)에 의해 사용되었던 유형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기업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Chi-Square 검증을 통해 조선인 기업가들의 기업가적 특성에 따른 빈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또한 각 기업가별로 조선인 기업가의 출신유형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 및 교차분석(cross tab)을 통해 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 특성을 파악하였다.

3.3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제시기(1910년~1945년) 동안에 활동한 주요 조선인 기업가(322명 중 자료가 양호한 119명)를 대상으로 6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단, 분석대상 기간은 1910년부터 193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 경제가 전시 경제체제로 재편성되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1942년 ‘기업정비령’을 공포·실시하게 되는 등 조선인이 설립한 기업이 거의 몰락하여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① 기업가 유형인 경우는 I 유형(관료출신), II 유형(지주출신), III 유형(서민출신) 등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명목적으로도 변환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출신과 관련하여 많이 표현된 기업가를 대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관료출신 기업가는 주로 한말 이래 봉건적 지배체제 하에서 각종의 특권을 이용하여 치부를 했던 왕족, 귀족 및 관료들로서 퇴관 이후 근대적 기업가로 변신한 경우이다. 지주출신 기업가는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미곡 등 농산물을 지대, 또는 고리대금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으로서 1920년대 이후 근대 기업가로 전환한 경우이다. 서민출신 기업가는 본래 토착상인들로서 영리에 민감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사업의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상인들로서 개항 이후 근대 기업가로 변신한 경우이다.

② 출생 시기인 경우는 1870년 이전, 1870년~1879년, 1880년~1889년, 1890년~1899년, 1900년 이후 등과 같이 5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단지, 이러한 구분방법은 일단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분하기 쉽게 0으로 끝나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이다.

③ 출신 지역인 경우는 서울(한성, 경성),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기타 등과 같이 10개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을 하나로 묶어 서울(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기타(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와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목적으로도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5개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당시 조선인이 기업가활동을 수행한 지역을 감안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④ 활동시기인 경우는 1910년대(1910~1919년), 1920년대(1920년~1929년), 1930년대(1930년~1945년), 2개 년대(중복), 3개 년대(중복) 등과 같이 5가지의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활동의 시기를 구분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경영활동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⑤ 학력인 경우는 본래 한문수학, 보통학교, 실업학교, 중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기타 등과 같이 7개 항목으로 구분될 것이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통학교와 실업학교’를 하나로 묶어 한문수학, 보통학교 및 실업학교, 중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대학, 기타(불명)와 같이 6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구분하였다.

⑥ 경영다각화인 경우는 단일 업종, 다 업종(2개), 다 업종(3개), 다 업종(4개), 다 업종(5개 이상) 등과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경영다각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⑦ 업종인 경우는 은행업, 금융신탁업, 제조업, 상업, 운수창고업, 농림수산업, 양조업, 정미업, 기타 등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제조업, 비제조업, 기타(제조업과 비제조업)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조상의 신분, 부친의 직업, 가정상황, 동기 유형, 사업경험, 설립시기, 경영정신, 사회적 공헌 등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여 조사내용에서 제외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표 1>에서 조선인 기업가의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생 시기는 1880년~1889년이 37명(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870년~1879년 24명(20.2%), 1890년~1899년 22명(18.5%), 1870년 이전과 1900년 이후 각각 18명(15.1%)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서울 51명(42.9%), 경상도 24명(20.2%), 기타(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해외 등) 22명(18.5%), 전라도 15명(12.6%), 충청도 7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시기는 2개 년대(중복) 40명(3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20년대 31명(26.1%), 1930년대 23명(19.3%), 3개 년대(중복) 14명(11.8%), 1910년대 11명(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한문수학 37명(3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불명) 25명(21.0%), 대학교 23명(19.3%), 보통·실업학교 21명(17.6%), 중등학교 8명(6.7%), 고등전문학교 5명(4.2%)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다각화는 단일 업종 50명(42.0%), 다 업종(2개) 25명(21.0%), 다 업종(3개) 21명(17.6%), 다 업종(5개 이상) 12명(10.1%), 다 업종(4개) 11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혼합(제조업과 비제조업) 51명(42.9%), 비제조업 50명(42.0%), 제조업 18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선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N	빈도	구분	항목	N	빈도
출생 시기	1870년 이전	18	15.1	학력	한문수학	37	31.1
	1870년~1879년	24	20.2		보통·실업학교	21	17.6
	1880년~1889년	37	31.1		중등학교	8	6.7
	1890년~1899년	22	18.5		고등전문학교	5	4.2
	1900년 이후	18	15.1		대학교	23	19.3
출신 지역	서울(경기)	51	42.9	경영 다각화	기타(불명)	25	21.0
	충청도	7	5.9		단일 업종	50	42.0
	경상도	24	20.2		다 업종(2개)	25	21.0
	전라도	15	12.6		다 업종(3개)	21	17.6
	기타	22	18.5		다 업종(4개)	11	9.2
활동 시기	1910년대	11	9.2	업종	다 업종(5개 이상)	12	10.1
	1920년대	31	26.1		제조업	18	15.1
	1930년대	23	19.3		비제조업	50	42.0
	2개 년대(중복)	40	33.6		혼합 (제조업·비제조업)	51	42.9
	3개 년대(중복)	14	11.8				

주 : 기타(출신지역별)는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해외 등임.

4.2 사회적 배경 특성

4.2.1 출생시기별 특성

<표 2>는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생시기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1880년~1889년 37명(31.1%), 1870년~1879년 24명(20.2%), 1890년~1899년 22명(18.5%), 1870년 이전과 1900년 이후 출생한 경우가 각각 18명(15.1%)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1870년~1879년 10명(8.4%), II유형은 1880년~1889년 18명(15.1%), III유형은 1890년~1899년 15명(12.6%)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I·II유형의 경우는 1890년 이전 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II유형은 1890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생시기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출생 시기별	1870년 이전	8(6.7)	7(5.9)	3(2.5)	18(15.1)
	1870년~1879년	10(8.4)	6(5.0)	8(6.7)	24(20.2)
	1880년~1889년	9(7.6)	18(15.1)	10(8.4)	37(31.1)
	1890년~1899년	1(0.8)	6(5.0)	15(12.6)	22(18.5)
	1900년 이후	2(1.7)	2(1.7)	14(11.8)	18(15.1)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30.876, p=0.000

4.2.2 출신지역별 특성

<표 3>은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신지역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신지역의 전체적 분포를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서울 51명(42.9%), 경상도 24명(20.2%), 기타 22명(18.5%), 전라도 15명(12.6%), 충청도 7명(5.9%)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서울 20명(16.8%), 경상도 6명(5.0%), II 유형은 서울과 경상도가 각각 13명(10.9%), III 유형은 기타(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 19명(16.0%), 서울 18명(15.1%) 등의 순으로 출신지역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I·II유형은 서울이나 경상도 출신지역의 비율이 높은 반면, III유형은 서울지역 출신이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 비율이 다른 두 유형의 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표 3>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신지역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출신 지역별	서울	20(16.8)	13(10.9)	18(15.1)	51(42.9)
	충청도	0(0)	5(4.2)	2(1.7)	7(5.9)
	경상도	6(5.0)	13(10.9)	5(4.2)	24(20.2)
	전라도	3(2.5)	6(5.0)	6(5.0)	15(12.6)
	기타	1(0.8)	2(1.7)	19(16.0)	22(18.5)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34.719, p=0.000

4.2.3 활동시기별 특성

<표 4>는 기업가 유형에 따른 활동시기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2개 년대(중복) 40명(33.6%), 1920년대 31명(26.1%), 1930년대 23명(19.3%), 3개 년대(중복) 14명(11.8%), 1910년대 11명(9.2%)의 비율을 나타냈다.

활동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주로 1920년대를 기점(13명, 10.9%)으로 2개 년대(중복)에 거쳐 활동한 비율(11명, 9.2%)이 높고, III유형은 1930년대를 기점(16명, 13.4%)으로 2개 년대(중복)에 거쳐 활동한 비율(15명, 12.6%)이 높은 반면, II유형은 2개 년대(중복)가 높게 나타나(14명, 11.8%) 상대적으로 전시기에 거쳐 비교적 고르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업가 유형에 따른 활동시기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활동 시기 기 별	1910년대	2(1.7)	5(4.2)	4(3.4)	11(9.2)
	1920년대	13(10.9)	8(6.7)	10(8.4)	31(26.1)
	1930년대	2(1.7)	5(4.2)	16(13.4)	23(19.3)
	2개 년대(중복)	11(9.2)	14(11.8)	15(12.6)	40(33.6)
	3개 년대(중복)	2(1.7)	7(5.9)	5(4.2)	14(11.8)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15.338, p=0.053

4.2.4 학력별 특성

<표 5>는 기업가 유형에 따른 학력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한문수학 37명(31.1%), 기타 25명(21.0%), 대학교 23명(19.3%), 보통실업학교 21명(17.6%), 중등학교 8명(6.7%), 고등전문학교 5명(4.2%)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한문수학 10명(8.4%), 보통-실업학교와 기타 7명(5.9%), II유형은 한문수학 14명(11.8%), 대학교 12명(10.1%), III유형은 한문수학 13명(10.9%), 기타 12명(10.1%), 보통-실업학교 10명(8.4%)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기업가 유형은 한문을 수학한 경우의 비율이 대학교나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표 5> 기업가 유형에 따른 학력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학력별	한문수학	10(8.4)	14(11.8)	13(10.9)	37(31.1)
	보통 실업학교	7(5.9)	4(3.4)	10(8.4)	21(17.6)
	중등학교	0(0)	1(0.8)	7(5.9)	8(6.7)
	고등전문학교	1(0.8)	2(1.7)	2(1.7)	5(4.2)
	대학교	5(4.2)	12(10.1)	6(5.0)	23(19.3)
	기타(불명)	7(5.9)	6(5.0)	12(10.1)	25(21.0)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14.784, p=0.140

4.2.5 경영다각화 특성

<표 6>은 기업가 유형에 따른 경영다각화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단일 업종 50명(42.0%), 2개 업종 25명(21.0%), 3개 업종 21명(17.6%), 5개 업종 이상 12명(10.1%), 4개 업종 11명(9.2%)의 비율을 나타냈다.

경영다각화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가 유형은 단일 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III유형은 단일 업종을 유지한 비율(24명, 20.2%)이 I·II유형(11명 9.2%, 15명 12.6%)에 비해 약 10%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II·III유형은 2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I 유형보다 높은 나타난 반면, I 유형은 3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다른 기업가 유형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업가 유형에 따른 경영다각화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경영다각화	단일 업종	11(9.2)	15(12.6)	24(20.2)	50(42.0)
	다 업종(2개)	4(3.4)	9(7.6)	12(10.1)	25(21.0)
	다 업종(3개)	10(8.4)	6(5.0)	5(4.2)	21(17.6)
	다 업종(4개)	3(2.5)	4(3.4)	4(3.4)	11(9.2)
	다 업종(5개 이상)	2(1.7)	5(4.2)	5(4.2)	12(10.1)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8.617, p=0.376

4.2.6 업종별 특성

<표 7>은 기업가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인 기업가는 혼합 51명(42.9%), 비제조업 50명(42.0%), 제조업 18명(15.1%)의 비율을 나타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혼합(제조업과 비제조업) 16명(13.4%), II유형은 비제조업 19명(16.0%), III유형은 비제조업 24명(20.2%) 순으로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I 유형은 사업초기부터 모든 업종에 진출한 반면 II·III유형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제조업에도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기업가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기업가 유형			전체
		I 유형	II유형	III유형	
업종별	제조업	7(5.9)	3(2.5)	8(6.7)	18(15.1)
	비제조업	7(5.9)	19(16.0)	24(20.2)	50(42.0)
	혼합 (제조업·비제조업)	16(13.4)	17(14.3)	18(15.1)	51(42.9)
전체		30(25.2)	39(32.8)	50(42.0)	119(100.0)

주 : 카이제곱=7.443, p=0.114

5. 맺음말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유형에 따른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 시기는 1880년~1889년 37명(31.1%), 출신지역은 서울 51명(42.9%), 활동 시기는 2개 년대(중복) 40명(33.6%), 학력은 한문수학 37명(31.1%), 경영다각화는 단일 업종 50명(42.0%), 업종은 혼합(제조업과 비제조업) 51명(4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유형의 경우는 1890년 이전 출생한 비율이 높았지

만 Ⅲ유형은 1890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식민지 초기 1890년 이전에 출생한 귀족관료출신이나 지주출신 기업가가 많이 탄생하였으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1980년 이후 출생한 상인출신이나 서민출신들이 근대기업가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Ⅱ유형의 경우는 서울이나 경상도 출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Ⅲ유형은 서울 출신이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이 다른 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귀족관료출신이나 지주출신 기업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반면 서민출신 기업가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넷째, 활동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Ⅲ유형의 경우는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활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Ⅱ유형은 상대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족관료출신이나 서민출신 기업가는 1920년대 전후를 계기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반면 지주출신 기업가는 시기에 관계없이 활동하였다.

다섯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가(I·Ⅱ·Ⅲ)유형은 한문을 수학한 경우의 비율이 대학교나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조선인 기업가는 개항 전후를 계기로 한문을 수학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일본식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학교, 대학 교육을 받은 기업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섯째, 경영다각화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의 경우는 3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Ⅱ·Ⅲ유형은 2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족관료출신 기업가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 업종에 사업다각화를 시도한 반면 지주출신과 서민출신 기업가는 단일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일곱째,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의 경우는 기타(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Ⅱ·Ⅲ유형은 비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족관료출신 기업가는 대규모 자본으로 모든 업종에 투자한 반면 지주출신이나 서민출신 기업가는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상업이나 무역업 등에 투자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부 조선인 기업가는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면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다. 둘째, 조선인 기업가는 서울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식민지화가 본격화되면서 기타 지역출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인 기업가는 자본력이 강한 귀족·관료출신이 많았으나 이후 근대기업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경영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기업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넷째, 조선인 기업가는 일본 독점자본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고, 중공업 발달이 본격화 되면서 서민출신 기업가가 등장하는 계기로 삼았다. 다섯째, 조선인 기업가는 자본력이 빈약 하였지만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을 쌓으면서 상업이나 농업분야 등에서 활동하였다. 여섯째, 조선인 기업가는 식민지 지배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대기업가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인 기업가 유형이 학력, 경영다각화, 업종보다는 출생 시기, 출신지역, 활동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5.2. 연구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 기업가들은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귀족 및 관료전직 자가 기업을 경영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가들이 지주출신이나 서민출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인 기업가는 귀족 및 관료의 유형에서 지주출신과 서민출신 유형으로 기업가의 행위 특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국내에서 발간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시점에서 기존자료를 통하여 기업가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朝鮮紳士寶鑑(1913年版), 朝鮮人事興信錄(1922年版), 朝鮮紳士錄(1931年版), 朝鮮功勞者名鑑(1935年版)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국가 간 사회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인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동한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는데, 향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45년 이후에 활동한 기업가를 토대로 한국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參考文獻】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日本興信所京城支所

고광명(2006)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동아연구』5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191-216

_____ (2008)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經營史學』23(2) 한국경영사학회, pp.221-251

高承濟(1975) 『韓國經營史研究』韓國能率協會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金泳謨(1971) 「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 背景과 移動」『아세아연구』14(2)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pp.107-125

김영수(1996)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大韓商工會議所(1950) 『大韓民國 銀行·會社·組合·團體名簿』

오미일(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한울아카데미

이덕훈(2003) 「戰後 日本의 企業家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일본문화학보』17 한국일본문화학회, pp.1-20

李漢九(1989)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靑史

이한구(1999) 『한국 재벌형성사』比峰出版社

張在洽(1927)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趙璣濬(1969) 「3·1운동 전후의 민족기업의 일유형」『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동아일보편, pp.751-752

_____ (1973) 『韓國企業家史』博英社

朝鮮新聞社編(1922,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研究會編(1917) 『新朝鮮成業銘鑑』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統督府官報(1910~1945)』

朝興銀行(1977) 『朝興銀行 100年史』

한상복(1997) 「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농촌사회』7 한국농촌사회학회, pp.5-32

黃明水(1976) 『企業家史研究』檀大出版部

東洋經濟新聞社編(194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麻生 誠(1970) 『大學と人材育成』中央公論社刊

滿成 博(1960) 『ビジネス エリート』中央公論社刊

石川健次郎(1974) 「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大阪大學經濟學』23(4) 大阪大学 經濟研究所, pp.85-117

阿部 薰編(1935) 『朝鮮功勞者名鑑』

_____ (1938) 『朝鮮人物大系』

有馬純吉(1931) 『朝鮮紳士錄』

- 由井常彦ヒルシュマイア(1975)「江戸時代の價值體系とビジネス-明治期の工業化との關連において」『經營史學』10(1) 日本經營史学会, pp.34-53
- 田中正剛編(1913)『朝鮮紳士寶鑑』
- 鳥羽欽一郎(1988)『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研究』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 中村資郎編(1921)『朝鮮銀行會社要錄』
- 天野 謙編(1929)『朝鮮商工大鑑』
- 淺野俊光(1980)「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經營史學』14(3) 日本經營史學會, pp.8-115
- 青沼吉松(1965)『日本經營層』日本經濟新聞社
- Collins, O. F. & G. Moore(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 Cooper, A. C. & W. C. Dunkelberg(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pp.11-23
- Lerner, M., Brush, C. & Hisrich, R.(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pp.315-339
- Hirshmeier(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zi Japan* [土屋喬雄由井常彦訳(1965)『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東洋經濟新報社]
- Stuart, R. W. &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215~230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要旨>

日帝下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유형에 따른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유형의 경우는 1890년 이전 출생한 비율이 높았지만, III유형은 1890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유형의 경우는 서울이나 경상도 출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III유형은 서울 출신이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이 다른 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셋째, 활동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I유형의 경우는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활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II유형은 상대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가(I·II·III)유형은 한문을 수학한 경우의 비율이 대학교나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다섯째, 경영다각화 특성을 살펴보면, I유형의 경우는 3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II·III유형은 2개 업종을 경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I유형의 경우는 혼합(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II·III유형은 비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인 기업가들은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of Chosun Entrepreneurs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 which were characteristics of Chosun entrepreneurs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the research sources, that is 'personal history(personal statements, resume) of entrepreneurs'. The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irth time of the Chosun entrepreneurs in the type II(type of landowner birth) was in 1880-1889 for the most part, the rest [I (type of aristocrat and bureaucrat birth)-III(type of ordinary people birth)] belonged in 1870-1879 and 1890-1899 with sequence. Second, around half of Chosun entrepreneurs had Seoul as their hometown, the rest of them had Gyeongsang-do and other as their hometown. Third, the activity time of the Chosun entrepreneurs was in the 1930s for the most part, the rest belonged in the 1910s and 20s with sequence. Fourth, Chosun entrepreneurs in the type 'I·II·III' studied Eastern ideas, Chosun entrepreneurs in the type 'III' had primary school as last degree mostly. Fifth, diversification of Chosun entrepreneurs in the type 'I·II·III' had single business as their major compared with other type. Sixth, Many of Chosun entrepreneurs in the type 'III' had commerce as their major compared with other type.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s entrepreneurs(CEO) suggestions in the time with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Also,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Chosun entrepreneur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entrepreneurs.

<부록> 일제하 조선인 기업가 개인이력서

기업가	출생	출신	학력	활동시기	업종	유형
강대식(姜大滉)	1878	전북	불명	○	제조	II
고원훈(高元勳)	1881	경북	明治大學	●	제조	I
공성학(孔聖學)	1879	경기	한문수학	○ ◎ ●	상업·기타/양조/농림·상업	III
공진항(孔鎭恒)	1900	경기	런던대학	◎ ●	양조·제조/농림·양조·상업	III
김갑순(金甲淳)	1872	충남	한문수학	○ ◎	상업·기타/제조	II
김기택(金基德)	1919	함경	鏡城중학교	◎	상업	III
김기태(金基泰)	1887	경남	불명	○ ●	상업·기타/제조·운수	II
김길선(金吉善)	1879	평북	불명	○ ◎	운수·상업	III
김동원(金東元)	1895	평안	法政大學	◎	상업	III
김문선(金文善)	1868	함남	불명	○	은행	III
김봉호(金鳳昊)	1915	제주	東京帝國大學	◎	제조	I
김사연(金思演)	1896	경기	慶應義塾大學	●	양조	II
김상섭(金尙燮)	1876	전남	불명	○ ◎	금융·운수·상업/상업·은행·제조	III
김상홍(金相鴻)	1923	서울	早稻田大學	●	농림	II
김성수(金性洙)	1891	전라	早稻田大學	○ ◎ ●	제조/제조/운수·농림·기타	II
김성환(金聖煥)	1888	경기	東京商業學校	○ ◎	상업/은행	III
김시구(金時龜)	1889	경남	愛知縣立窯業학교	○ ◎	상업·운수	II
김연수(金季洙)	1896	경기	京都帝國大學	○ ◎ ●	제조/은행·제조·운수/금융·제조·광업·운수·양조·기타	II
김영근(金永根)	1890	충청	불명	○ ◎ ●	상업/운수/제조·광업·농림	III
김영준(金英俊)	1901	경상	불명	●	운수·양조	III
김영철(金永哲)	?	경기	불명	◎	은행	II
김의명(金義明)	1905	평북	專修大學	●	광업	III
김정호(金正浩)	1886	경기	明治大學	○ ◎ ●	상업·기타/상업·제조·운수·상업·기타	II
김중훈(金鍾勳)	1869	경남	한문수학	○ ◎	상업/금융·제조/농림	II
김중흡(金中學)	1903	평남	培栽보고	●	금융·농림·상업	III
김한규(金漢圭)	1877	경기	한문수학	◎ ●	기타/금융·제조/금융·기타	I
목옥상(睦頊相)	1901	경기	보통농업학교	●	운수·양조·상업	I
문명기(文明琦)	1883	경북	한문수학	●	제조·양조	III
문중구(文鍾龜)	1884	서울	한문수학	○ ●	금융·상업/농림	II
민규식(閔奎植)	1893	황해	한문수학	◎ ●	제조/제조·농림·양조·기타	I
민대식(閔大植)	1882	경기	한문수학	◎ ●	금융/금융·농림·양조·상업	I
민병식(閔丙奭)	1858	경기	한문수학	◎	은행·금융/제조	I
민영기(閔泳綺)	1872	경기	한문수학	◎	농림·상업/제조	I
민영은(閔泳殷)	1870	충북	한성사범학교	○ ◎	상업·운수	II
민영휘(閔泳徽)	1852	경기	일어학교	◎	제조	I
박기순(朴基順)	1857	전북	사숙	○ ◎	운수/농림·은행	II
박병철(朴炳哲)	1874	전라	日本大學	◎	은행	II
박승직(朴承稷)	1864	경기	한문수학	○ ◎ ●	상업/상업/양조	III
박영근(朴永根)	1887	경기	한문수학	◎ ●	은행·제조/제조	II
박영철(朴榮喆)	1879	전북	사립成城학교	◎	제조(I)/제조(II)	I·II
박영효(朴泳孝)	1861	전남	기타	○ ◎	제조·은행/농림·수산·금융·제조	I
박종실(朴宗實)	1885	전남	한문수학	◎ ●	운수/운수·상업	III
박태현(朴泰鉉)	1911	서울	동경물리학교	○	기타	III
박흥식(朴興植)	1903	평안	보통학교	◎ ●	상업/제조·광업·운수·농림·상업·기타	III
박희옥(朴禧沃)	1892	전북	전주三南학당	◎	상업·은행	III
방의식(方義錫)	1905	함남	私立克明學校	◎ ●	양조·상업·운수/금융·제조·운수·양조·상업·기타	III

기업가	출생	출신	학력	활동시기	업종	유형
방인혁(龐寅赫)	1878	충북	불명	○ ◎	상업·운수	II
배상연(裴相淵)	1889	경북	외국어학교	◎	운수	II
배정기(裴貞基)	1892	함북	한문수학	●	농림	III
백낙승(白樂承)	1886	서울	明治大學	○ ◎ ●	상업/금융·제조/제조·상업	III
백완혁(白完赫)	?	경기	불명	○ ◎	운수·농림/은행·금융·제조	III
백윤수(白潤洙)	1871	경기	불명	○	상업	III
백인기(白寅基)	1882	경기	한문수학	◎ ●	농림·광업/농림	II
서병조(徐丙朝)	1886	경북	불명	○ ◎ ●	은행/상업/금융·제조·기타	II
서병화(徐炳和)	1883	경북	불명	◎ ●	양조·은행·금융/양조·상업	I
석진형(石鎭衡)	1877	서울	東京大學	◎ ●	상업·제조·양조·상업	I
설경동(薛卿東)	1902	함북	錦成실업학교	●	농림	III
성낙헌(成樂憲)	1881	충남	양정의숙	○ ◎ ●	은행/제조/제조	II
손봉상(孫鳳祥)	1861	경기	神戶高商	○	상업	II
손재하(孫在廈)	1889	충북	德明學校	●	양조	III
손홍준(孫洪駿)	1886	경기	神戶高商	○ ◎	제조·기타/금융	III
송병직(宋秉直)	1885	서울	京城大學	○	상업·기타	II
신석정(申錫定)	1883	함남	경성법학전문학교	◎	은행	III
신수갑(辛壽甲)	1900	경남	부산元公상업학교	●	상업	III
신태민(辛泰斌)	1883	경기	官立일어학교	◎	은행	II
안희제(安熙濟)	1885	경남	양정의숙	○	상업	II
양재하(楊在河)	1883	경북	동경제국대학	◎ ●	은행·제조/농림	I
양춘선(楊春先)	1906	서울	東興중학교	◎ ●	상업	III
예종석(芮宗錫)	1872	경기	電郵학교	○ ◎	제조·상업·금융/광업·상업	I
원덕상(元德常)	1883	경기	千葉의학전문학교	◎ ●	금융/기타	I
위정학(魏楨鶴)	1890	함남	불명	◎ ●	운수/농림	III
유일한(柳一韓)	1895	미국	미시간대학	●	상업	III
윤길중(尹吉重)	1884	평북	早稻田大學	◎	금융	II
윤덕영(尹德榮)	1874	경기	한문수학	○ ◎	은행/은행·제조	I
윤상은(尹相殷)	1887	경남	개성학교	○	은행	I
윤석필(尹錫弼)	1901	함북	京城中東學校	●	상업	III
윤현태(尹顯泰)	1889	경남	한문수학	○ ◎	상업/금융	II
이 청(李 靑)	1879	경남	불명	◎	상업·금융·운수	I
이강원(李康元)	1863	전북	한문수학	◎	은행	II
이경세(李慶世)	1887	경기	한문수학	◎ ●	금융/금융	III
이근택(李根澤)	1865	경기	불명	◎ ●	제조·농림·상업·기타	I
이동선(李東善)	1893	서울	외국어학교	●	제조	III
이만수(李晩秀)	1891	전라	경성興化중학교	◎ ●	제조/금융·제조·광업·상업·기타	III
이명권(李明權)	1890	평남	한문수학	◎	상업	III
이병학(李柄學)	1869	경북	한문수학	○ ◎	은행·농림·양조/양조·상업·은행·제조	II
이완용(李完用)	1858	서울	育英公院	◎	제조	I
이윤용(李允用)	1854	경기	불명	◎	농림·상업·기타·제조	I
이은우(李恩雨)	1881	경남	중앙대학	◎	상업·운수	I
이일우(李一雨)	1887	경북	湖上사립학교	○	은행·제조	II
이종택(李鍾惠)	1896	충남	京城普成전문학교	●	양조	II
이진호(李軫鎬)	1873	경기	金東成公院	◎	은행	I
이하영(李夏榮)	1858	경기	불명	◎	제조	I
이해승(李海昇)	1861	경기	불명	◎	농림·광업·은행	I
장두현(張斗鉉)	1873	경기	불명	○ ◎	상업/상업·제조	III
장직상(張稷相)	1883	경북	기타	○ ◎ ●	은행/양조·은행·제조/금융·제조·운수·상	II

기업가	출생	출신	학력	활동시기		업종	유형
전용순(全用淳)	1901	경기	선린상고		●	제조업	III
정명선(鄭明善)	1894	서울	한문수학		●	광업	III
정완규(鄭完圭)	1897	서울	불명	○		제조	III
정재완(鄭在沔)	1879	경남	불명	○		상업	III
조동윤(趙東潤)	1871	경기	한문수학	○		은행	I
조준호(趙俊鎬)	1903	경기	中央大學		●	금융·운수·농림·상업·기타	II
조진태(趙鎭泰)	1873	경기	한문수학	○	○	제조·상업/상업·금융/상업	III
진희규(秦喜葵)	1878	경북	불명	○		상업	II
차남진(車南鎭)	1893	전남	明治大學	○	●	양조·은행/제조·양조·정미	III
최남(崔楠)	1895	경기	京城普成중학교		●	금융·제조·운수	III
최준(崔浚)	1884	경북	한문수학	○	○	은행·제조/상업·은행·제조	II
최인국(崔寅國)	1886	경남	한문수학	○		은행	II
최인성(崔仁成)	1912	함남	동경고등공업학교	○		상업	III
최준집(崔準集)	1893	강원	明治大學	○	●	운수/제조·농림·양조·상업·기타	II
최창학(崔昌學)	1891	평북	불명		●	금융·제조·광업·운수	III
최형호(崔鎰浩)	1899	전남	보통교육	○		양조·제조	III
최희순(崔熙淳)	1878	평북	한문수학	○		상업	III
하준석(河駿錫)	1898	경남	早稻田大學		●	금융·제조·운수·농림·양조·기타	II
한상용(韓相龍)	1880	경기	관립영어학교 사립成城學校	○	○	제조·농림/금융·제조·운수/금융·제조·농림·양조·기타	I
한익교(韓翼敎)	1886	경기	관립외국어학교	○	●	농림·운수/기타	I
현기봉(玄基奉)	1855	전남	한문수학	○	○	제조·운수·상업/제조	II
현준호(玄俊鎬)	1889	전남	明治大學	○	●	은행·제조/제조·농림·상업	II
홍우주(洪馬嘯)	1884	평남	한문수학	○		상업	III
홍충현(洪忠鉉)	1879	경기	불명	○		제조	I

주 1: I 형=관료출신형 기업가, II 형=지주출신형 기업가, III 형=서민출신형 기업가

주 2: 활동시기에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자료: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